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의 어음 표기와 정음 인식에 대하여

구현아*

국문초록

일제강점기는 중국과의 교역, 독립운동 전개, 이주 등의 목적으로 중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 편찬된 중국어 교재는 사역원에서 편찬된 역학서와는 달리, 서양식 인쇄 기술로 중국어의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일본어나 영어로 내용을 번역하며, 가타카나, 알파벳으로도 주음하고,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자모를 조합한 새롭고 다양한 표기를 사용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 출현한 성모, 운모, 표기의 새로운 표기를 나열하고, 사역원 편찬의 중국어 역학서와의 다른 표기법 특징과 음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북경관화를 표준음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음했는데,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서는 북경관화이 표준음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와 같은 표준음에 대한 기술은 이 시기 중국어 교재에서 본격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한국의 중국어 교재 역사상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는 형식, 내용상의 전환을 보여준다. 본고의 연구결과가 중국어 교육사 및 중국어사를 총체적이고 면밀하게 밝히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중국어 교재, 일제강점기, 가타카나, 알파벳, 북경관화

* 용인대학교 용오름대학 부교수

- | | |
|-------------------------|----------------------|
| 1. 들어가는 말 | 4. 한국의 중국어 교재의 정음 인식 |
| 2.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의 체재와 내용 | 5. 나오며 |
| 3.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의 어음 표기 | |

1. 들어가는 말

중국과 정치·외교, 경제적 교류가 가장 빈번했던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중국어 교육이 매우 중시되었다. 고려시대 通文館이 설치되어 중국어 교육을 담당하였고, 조선시대에는 司譯院이 설치되어 갑오경장까지 존속되며 외국어를 구사하는 관리의 양성, 외국어 통번역, 외국어 교재를 편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老乞大》, 《朴通事》로 대표되는 회화서 뿐만 아니라, 《譯語類解》, 《譯語類解補》와 같은 어휘 학습서를 이 시기 쓰인 대표적인 중국어 학습서로 꼽을 수 있다.¹

19세기 이후 조선의 근대화, 서양 열강의 침략, 일제의 식민 지배 등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자, 외국어 교육 상황도 이에 따라 급변하게 된다. 갑오경장 이후 신분제 폐지와 학교 제도 신설에 따라 대중이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때 사역원은 폐지되었으며, 官立漢語學校와 같은 외국어 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중국어 교육이 실시되었다.² 이때 일본에서 번역한 재증 서양인의 중국어 교재뿐만 아

1 《노걸대》는 고려시대 편찬되어 사용되었으며, 조선 초기에는 《老朴集覽》, 중기에는 《老乞大諺解》, 《朴通事諺解》, 《老乞大新釋》, 《老乞大新釋諺解》, 《朴通事新釋》, 《朴通事新釋諺解》, 《五倫全備諺解》가 편찬되었다. 사역원에서 편찬된 중국어 교재는 정광(1998) 참조.

2 1895년 5월 <외국어학교관제>가 공포되어 새 학제의 외국어 학교가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어 학교, 일어 학교, 한어(漢語, 중국어) 학교, 법어(法語, 프랑스어) 학교, 아어(俄語, 러시아어) 학교, 덕어(德語, 독일어) 학교로 나뉘어 통합되다가 1908년 관립한

나라, 일본인이 편찬한 중국어 교재도 상당수가 유입되어 한국의 중국어 교재 편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최초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 관립한어학교에서 《亞細亞言語集》(1880), 《官話指南》(1882), 《增訂亞細亞言語集》(1902), 《官話急就編》(1904)과 같은 일본의 중국어 교재를 사용하였고, 20세기 초에는 일본에서 사용한 중국어 교재가 그대로 들어와 사용되었다.³

일본의 식민지가 본격화 된 19세기 후반 이후에 한국은 일본의 중국어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다. 본래 한국에서는 19세기 후반 이후 민간에서 취업, 교역, 독립운동 등의 목적으로 중국어를 학습하고자 했는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이후에는 우리 국민을 중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일제 식민 사업에 한국의 국민을 동원할 목적으로 중국어 교육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국내외 취업이나 무역, 독립운동 등의 목적으로 민간에서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존재했으며, 교당이나 강습소, 야학이나 간도의 한국인 설립 사립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⁴ 한편, 일제가 중국 대륙 진출을 위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고

성외국어학교로 통합되었다. 사역원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관립외국어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외국어를 교육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 사역원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중국어,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와 같은 아시아 언어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관립외국어학교에서의 교육은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은 유럽어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관립외국어학교는 1911년 일제가 조선교육령을 반포함에 따라 폐교되었다. 이광숙(2014), 《개화기의 외국어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35-59쪽.

- 3 관립한어학교에서 학년별, 과목별 중국어 교재 사용 상황은 이광숙(2011)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소은희·신윤희(2010)는 《支那語讀本》(1938), 《華語要訣》(1938), 《支那語語法篇》(1938), 《對譯實用支那語會話篇》(1939) 등 우리나라 제2차,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 쓰여진 중국어 교재 92권을 제시하였는데, 필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일본인 편찬 중국어 교재의 수량까지 조사한 결과 170여 권이 있었다. 이 목록은 추후 연구물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4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사이의 중국어 교육 상황은 이때 사용된 중국어 교재 안의 내용

침략을 본격화한 1930년대 이후에는, 중국에서의 식민 지배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어를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한국의 사람들에게도 중국어 교육을 장려하였다. 1932년 일제는 고등보통학교 규정 第九條에 중국어를 추가하고, 1938년 발표한 제3차 조선교육령의 中學校學制 第十條에서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중국어를 포함시켰다. 이후, 관립전문학교나 사범학교, 중등학교에서 중국어를 확대 실시하였고, 일부 학교에서는 중국어가 필수로 지정되기도 했다.⁵

이때 사용한 중국어 교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본에서 들여온 중국어 교재이다. 이 중에서는 서양인이 편찬한 교재를 일본인이 번역한 《亞細亞言語集》(1880), 《增訂亞細亞言語集》(1902) 등이 있고, 일본인이 직접 편찬한 《官話指南》(1882), 《官話急就編》(1904), 《華語跬步總譯》(1907), 《(北京官話)支那語文法》(1919), 《華語捷徑》(1924) 등도 있다. 둘째, 한국 사람에 의해 편찬된 중국어 교재이다. 박재연·김아영(2009)의 한어회화서에는 1910년에서 30년대 구할자본 9종의 중국어 교재와 박재연·김아영(2011)의 한어회화서에는 구할자본 3종, 필사본 3종의 영인본이 실려있는데 다음과 같다.⁶

으로부터 추측이 가능하다. 《官話 華語規範》(1915), 《無先生速修中國語自通》(1929)의 대화 내용을 보면 교당, 가정, 강습소, 야학 등에서 수업했는데, 교당에서의 수업은 학교 수업처럼 종으로 수업 시작을 알리고 출석을 확인하고 받아쓰기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기지가 된 간도 및 만주 지역의 동신학교, 명동학교 등의 사립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은 독립운동 기지의 역할과 동시에 민족문화를 전수하고 반일사상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사립학교 내에서도 중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중국조선족 교육편찬위(1999), 《중국조선족교육사》, 서울: 한국문화사, 51쪽, 남윤순(2009), 1910년대, 1920년대 중국어 교재 연구: 《官話 華語教範》(1915), 《無先生速修中國語自通》(1929)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29쪽.

5 동아일보, 1938년 2월 5일, 4월 8일, 4월 23일, 5월 4일 기사 참조.

6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중국어 교재의 정확한 수량은 알기 어렵다. 김아영·박재연(2018)에 제시된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는 총 44권이 있으며, 기타 김상규(2016), 김아영·김현철

〈표 1〉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 목록

No.	서명	저자	년도	출판사	소장처
1	交隣要素	미상	1906추정	필사본	선문대학교
2	漢語獨學	宋憲奭	1911	新舊書林	선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3	漢語指南	柳廷烈	1913	滙東書館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4	(高等官話)華語 精選	高永完	1913	普書館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5	華語教範	李起馨	1915	普昌書館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6	官話問答	미상	1915-1924 추정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7	漢語大成	王運甫	1918	以文堂	선문대학교
8	速修漢語自通	宋憲奭	1918	唯一書館	고려대학교, 선문대학교
9	自習完璧支那語 集成	宋憲奭	1921	德興書林	선문대학교, 연세대학교
10	官話叢集	張子純	1924	필사본	선문대학교, 서울대학교
11	無先生速修中國 語自通	白松溪	1929	永昌書館	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12	中語大全	李祖憲	1934	漢城圖書株式會社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13	速修滿洲語自通	文世榮	1934	以文堂	선문대학교, 서원대학교
14	北京官話支那語 大海	文世榮	1938	永昌書館	경희대학교
15	內鮮滿最速成中 國語自通	金松圭	1939	南昌書館	대구카톨릭대학교

(2015)와 같이 당시 독립운동가나 중국어학자에 의해 편찬된 중국어교재가 지속적으로 발굴, 학계에 소개되고 있다.

상술한 중국어 교재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어 교재의 편찬 주체가 정부 기관에서 민간인으로 변화했다는 것, 둘째, 기존의 목판, 활자본이 아닌 서양식 인쇄 기술로 편찬되었다는 점, 셋째, 일본어나 영문으로 번역하거나 가타카나, 알파벳으로 주음하는 등 내용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는 한국의 중국어 교재 역사상의 형식적, 내용적 변혁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시 사회 문화상, 서지학적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김상규(2016, 2020), 김아영(2017, 2018), 서미령(2011, 2012, 2013, 2014a, 2014b, 2018), 소은희(2015), 신미섭(2010, 2011, 2013, 2014, 2015, 2016) 등에서 개별 문헌에 나온 어법, 음운, 문화적 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교재에 나온 성모, 운모, 성조에 쓰인 모든 표기에 대한 전체적인 고찰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 시기 어음 표기에는 사역원에서 시도된 바 없는 새로운 자모의 조합으로 나온 표기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재연·김아영(2009, 2011)에 나온 15종의 중국어 교재에 쓰인 성모, 운모, 성조 표기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이 표기들이 기반한 표준 음운, 즉 정음에 대한 인식을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2.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의 체재와 내용

《老乞大》, 《朴通事》로 대표되는 사역원 교재는 무역용 회화 중심, 훈민정음 자모를 사용한 左音, 右音의 이원화된 주음, 언문 풀이의 공통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 19세기에 민간에서 편찬된 중국어 교재는 무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했고, 주음에 여러 자음, 모음이 조합된 새로운 형식의 표기가 시도되었다. 주음에는 가타카나 혹은 웨이드식 표

기를 사용하기도 했고, 특히 30년대 이후 편찬된 교재는 일본어로 본문을 번역한 경우도 많다.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주요 중국어 교재의 서지 사항과 주음 및 번역에 쓰인 문자, 언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 서지사항 정리

서명	저자	편찬 년도	주음 상황	주음에 사용된 문자	번역에 사용된 언어	내용
《漢語獨學》	宋憲奭	1911	성모, 운모	한글	한국어	숫자, 대명사, 동사 용법 외 連語(날씨, 옷, 음식, 진찰, 교역 등)
《高等官話華語 精選》	高永完	1913	성모, 운모	한글	한국어	官話平仄編, 문답(접대, 음식점, 기차표 사기, 여행 등)
《速修漢語自通》	宋憲奭	1915	성모, 운모	한글	한국어	用法部(숫자, 구구법, 월일, 방향, ‘做’자 용법, ‘要’자 용법 등)
《自習完璧支那 語集成》	宋憲奭	1921	성모, 운모, 성조	한글	한국어	숫자, 계절, 지리 관련 어휘, 대명사, 형용사, 동사, 접속사 등
《無先生速修中 國語自通》	白松溪	1929	성모, 운모	한글, 가타카나	한국어, 일본어	숫자, 천문, 지리 관련 어휘, ‘被’동사 용례, 동사 응용 예 등

《中語大全》	李祖憲	1933	성모, 운모, 성조	한글	한국어	‘兒’자 용법, ‘了’자 용법, 인칭대명사, 화폐 도량형 등
《滿洲語舞師自 通》	李春一	1933	성모, 운모	한글, 가타카나	한국어, 일본어	單語之部(방향, 천문, 지리, 신체 등), 會話之部(손님 접대, 진맥, 길 묻기 등)
《滿洲語講座》	張志映	1933	성모, 운모, 성조	한글, 웨이드식	한국어	四聲, 重念, 단어 및 일상 회화
《支那語大海》	文世榮	1938	성모, 운모	한글, 가타카나	한국어, 일본어	會話 入門, 社會 會話, 家庭 會話, 단어 등
《無師速成日鮮 滿洲語自通》	文世榮	1942	성모, 운모	한글, 가타카나	한국어, 일본어	單語編(수사, 계절, 시간, 천문 등), 會話編(소개, 여행, 매매, 이발소, 기차 등)

위 교재에 쓰인 새로운 한글 자모 표기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알아볼 것이므로, 본 장에서는 주음에 쓰인 새로운 문자와 일본어 번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1920년대 후반부터 가타카나가 주음에 등장하는데, 1930년대에는 가타카나가 주음에 보편적으로 쓰였다. 뿐만 아니라, 수록 어휘, 본문 문장에 대해서도 일본어 번역이 병기되었다. 1930년대에는 일

제의 한국어 말살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일본어 사용이 강제되었는데 한국의 중국어 교재에도 이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內鮮滿最速成中國語自通》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3〉《內鮮滿最速成中國語自通》수록 어휘의 주음, 번역 예시

第二章 天文門	하늘 (ソラ)	텐 천 (チン)
	바람 (カゼ)	앵 風 (펜)
	비 (アメ)	위 雨 (유이)
	서리 (シモ)	쌍 霜 (산)
	눈 (ユキ)	쑤 雪 (스그)
	이슬 (ツユ)	우 露 (르)

뿐만 아니라, 《滿洲語講座》에서는 19세기 후반 재중 서양인의 교재에서 널리 쓰였던 웨이드식 표기(Wade's System)에 대해 “支那音を 표기함에는 이상 注音字母로 함이 가장 정확할 것은 물론이나 종래로 로마자기음법을 많이 써왔는데 차는 영국인 웨드(Mr. Thomas Reancis Wade)씨의 창안한 것으로 웨드式이라 하나니”라고 하며 일부 단어에 대해 웨이드식으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行’은 hsing, ‘不’은 pu, ‘點’은 tien으로 주음한 것과 같다.

중국어 문법의 용어와 개념이 최초로 제시되었다는 것도 이 시기 중국어 교재의 특징 중 하나이다. 품사의 종류(대명사, 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조사 등)와 하위 분류, 문장성분(주격, 목적격, 소유격 등), 구문론(의자문, 把자문, 被자문, 接어문 등) 등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재중 서양인에 의한 중국어 교재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을 일본의 중국어 교재에서 받아들이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중국어 교재에서 반영한 것이다.(신미섭 2016)

3.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의 어음 표기

3.1. 성모

b	p	m	f
ㅂ, ㅃ, ㅄ, ㅅㅅ	ㅍ	ㅁ	ㅍ, ㅍㅍ, ㅍㅍ, ㅍㅍ
d	t	n	ㄴ
ㄷ, ㅌ, ㄴ	ㅌ	ㄴ	ㄷ, ㄴ
g	k	h	
ㄱ, ㅋ, ㆁ	ㅋ	ㅎ	
j	q	x	
ㅈ, ㅉ	ㅊ	ㅈ	
z	c	s	
ㅈ, ㅉ, ㅉ	ㅊ, ㅉ	ㅈ	
zh	ch	sh	r
ㅈ, ㅉ, ㅉ	ㅊ	ㅈ, ㅉ	ㄷ, ㅉ, ㄷ

첫째, 무성 무기음인 b, d, g를 나타낼 때 자음으로 ㅂ, ㄷ, ㄱ가 기본적으로 쓰였으나, 간혹 ㅌ, ㅄ과 같이 각자 병서한 것이 출현하기도 한다. 각자 병서한 것이 출현하는 특정한 환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각자 병서한 것은 된소리를 나타내는데, 1910, 20년대 교재에서는 이것이 줄곧 ㅅ계 합용 병서인 ㅃ, ㅌ, ㅅ와 같이 기록되다가 30년대 교재 이후에 각자 병서로 나타나는데, 이는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된소리를 각자 병서로 표기할 것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⁷ 사역원 편찬 교재에서는 무성 무기음은 ㅂ, ㄷ,

7 된소리를 각자 병서하는 것은 한글맞춤법통일안 이전 1930년 「언문철자법」 12항에서 언급된 바가 있다.

ㄱ 등으로, 유성음은 ㅃ, ㅌ, ㄴ로 기록하는 원칙을 따랐지만, 19세기 중반 이후 민간인 편찬 중국어 교재에서부터 무성 무기음을 ㄱ계 합용병서로도 표기했는데, 이는 무성 무기음을 한국인 학습자가 평음뿐만 아니라 경음의 발음과도 유사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ㅇ계 합용 병서가 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교재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는 ㅇ과 후행하는 자음 사이의 발음을 나타낸 것인데, 성모 zh, ch, sh(ㄹ, ㄹ, ㄹ)와 f(ㅍ, ㅍ 등) 및 r의 표기(ㄹ)에 쓰였다.⁸ 특이한 것은 치두음의 표기에도 ㅇ계 합용 병서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동북관화에 치두음과 정치음이 혼동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북경관화를 기반으로 한 기타 저작을 보면 정치음과 치두음 표기에 이 두 계통의 성모가 서로 혼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華語精選》에서 ㄱ(事), 《漢語大成》에서 ㄱ(+), ㄹ(總), 《漢語自通》에서 ㄹ(子), 《中國語自通》에서 ㄱ(晒), ㄴ(舍), ㄹ(雜)과 같은 표기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당시 정치음과 치두음 성모가 상호 혼용되는 것은 북경관화와 동북관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특징을 지금의 동북관화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동북관화는 見組는 모두 구개음화 되었지만, 日母가 영성모로 발음되거나 치두음과 정치음 성모가 서로 혼용되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출현한다. 錢曾怡(2010)에 나온 예를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漢語獨學》에서는 ‘외는 아사 間음이니 ㄹ, ㅍ 等이 皆倣此音.’이라 하여, sh성모의 발음에 ㅇ계 합용병서를 사용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ㅇ과 ㅈ, ㅊ, ㅌ가 결합한 것은 zh, ch, sh에 대응된다.

	奏 (精)	昼 (知)	皺 (莊)	咒 (章)	摧 (清)	鍾 (澄)	炊 (昌)	蘇 (心)	梳 (生)	書 (書)
하얼빈형 (哈爾濱型)	ts	tʂ			tsʰ	tʂʰ	tsʰ~tʂʰ	s	ʂ	
흥성형 (興城型)	tʂ				tʂʰ			ʂ		
심양형 (瀋陽型)	ts				tsʰ			s		
길림형 (吉林型)	ts~tʂ				tsʰ~tʂʰ			s~ʂ		

하얼빈형에서는 기본적으로 知組와 精組가 섞이지 않으나, 일부 발화자에 따라 知組와 精組를 혼용하는 특징이 있다. 흥성형은 知組와 精組가 합병되어 tʂ계열로 읽히고, 심양형은 ts계열로 읽힌다. 길림형의 경우 발화자에 따라 ts계열과 tʂ계열이 혼용되는 특징이 있다. 日母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장소 예자	瀋陽	吉林	巴彥	訥河	佳木斯
熱	ie	zʰ	zʰ	ie	iə
人	in	in	in	in	in
日	i	zɿ	zɿ	i	i
入	y/ɿu	y/zɿu	zɿu	y	y
肉	iəu	iou	iəu	iəu	iəu

일부 지역에서 日母字의 성모를 z로 읽는 현상이 출현하지도 하지만, 日母字를 영성모로 읽는 것은 동북 대부분의 지역, 특히 瀋陽 및 以北의 지역 대부분을 포괄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張志敏(2005)의 《東北官話的分區》에 의하면 오늘날 동북관화는 이상의 내용 이외에도 북경관화의 일부 무기음자를 유기음으로 발음하는 것과, 북경관화의 일부 유기음자를 무기음으로

발음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鵝’, ‘愛’, ‘安’, ‘昂’과 같은 영성모자의 성모를 n으로 읽기도 한다. 그러나 만주어를 제목으로 하는 교재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비록, 지금의 동북관화와는 차이가 있으나 당시에도 일모를 영성모로 발음하거나 정치음과 치두음자의 성모가 혼용되는 특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순경음 표기에 ㄹ , ㅍ , ㅍ 등이 출현하기도 한다. 사역원에서 출판된 교재에서는 일관적으로 순경음 비읍을 썼으나, ㄹ , ㅍ , ㅎ 등을 이용한 다양한 병서가 시도되었다.

넷째, 마지막으로, 성모 r에 대하여 이 책에서 ㄹ 을 썼는데, 이는 과거 사역원에서 줄곧 사용되던 ㄹ 에 새롭게 추가된 표기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성모 l에 대한 표기에 ㄹ 이외에도 ㄹ 과 같은 표기가 등장하였다. 무성 무기음을 나타내는데 국어의 각자 병서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이것은 국어에도 쓰이지 않는 각자 병서의 일종이다. 李春一은 《滿洲語無師自通》의 범례에서 이 음은 ‘ㄹ’을 좀 더 강하게 발음하는 것으로 영어의 L음과 같은데 당시 외국어를 음역하는데 이것이 널리 사용되어 이 책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서의 성모 표기는 이전에 편찬된 교재에서의 성모 표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째, 치두음 ㄹ , ㅍ , ㄹ , ㅍ , 정치음 ㄹ , ㅍ , ㄹ , ㅍ 표기는 소실되었고, 정치음 표기에는 ㅇ 계 합용 병서를 사용했다. 성모 r에 대하여 이 책에서 ㄹ 과 같은 ㅇ 계 합용 병서를 쓰기도 했다. 둘째, 순경음 표기에 순경음 비읍이 아닌 ㄹ , ㅍ , ㅍ 등 다양한 병서를 사용했다. 셋째, ㄹ 이외에도 ㄹ 과 같은 각자 병서를 썼다. 교재마다 새롭고 다양한 표기가 출현하는 원인은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가 서로 다른 민간 저자에 의해서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3.2. 운모

i[ɨ]	i	u	ü
ㅡ			
i[ɨ]	ㅣ	ㅓ	ㅗ, ㅛ
ㅜ, ㅟ			
a	ia	ua	
ㅏ	ㅑ	ㅓ	
o		uo	
ㅜ		ㅟ	
e			
ㅓ			
ê	ie		
-	ㅐ, ㅑ		
er			
열(二)			
ai		uai	
ㅐ, ㅑㅓㅣ, ㅐㅓㅣ		ㅑㅓ, ㅑㅓㅓㅣ	
ei		uei	
ㅑㅓ, ㅑㅓ, ㅑㅓㅣ		ㅑㅓ, ㅑㅓㅓㅣ	
ao		iao	
ㅑㅓ, ㅑㅓ		ㅑㅓ	
ou		iou	
ㅑ		ㅑㅓ, ㅑㅓ, ㅑㅓ	
an	ian	üan	
ㅑ	ㅑㅓ, ㅑㅓ	ㅑㅓ, ㅑㅓ	
en	in	uen	ün
ㅑㅓ, ㅑㅓ, ㅑㅓ, ㅑㅓ	ㅑㅓ, ㅑㅓ	ㅑㅓ	ㅑㅓ
ang	iang	uang	
ㅑ	ㅑㅓ	ㅑㅓ	
eng	ing	ueng	
ㅑㅓ, ㅑㅓ	ㅑ	-	
ong	iong		
ㅑ	ㅑ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의 운모 표기도 한 음절에 대해 다양한 운모 표기가 출현하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단운모보다 복운모에서 더 강하다.

먼저 단운모의 표기를 살펴보겠다. 첫째, ɿ에 대한 표기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ㅡ, ㅣ가 모두 쓰였다. 《滿洲語速成會話講義合本》이나 《滿洲語問答會話集》에서는 ㄴ이 쓰이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조선시대 중국어 교재에서 ㄴ은 ‘梅’, ‘費’, ‘妹’와 같은 止攝 脣音字를 표기하는데 사용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서는 이것이 ɿ를 표기하는데 사용되었다. 止攝 脣音字의 운모는 이 시기 교재에서 ㅐ, ㅔ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ü에 대한 표기에 ㅟ와 ㅢ를 썼다. 후자는 조선시대 사역원에서 펴낸 중국어 교재에서 줄곧 ü에 대한 표기로 쓰였지만, 전자는 본래 ‘對’, ‘退’와 같은 蟹攝 合口字에 쓰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 와서 이는 ü를 나타내는데 쓰이며, 본래 ㅢ로 쓰이던 蟹攝 合口字의 운모는 ㅢ로 표기되었다.

다음으로 복운모를 살펴보겠다. 먼저, 위 표에서 복운모에만 쓰인 특이한 표기가 있다. 《滿洲語無師自通》에서는 일부 복운모의 음절 사이에 ㄴ표기를 하였는데 이외에도 《無師速成滿洲語大王》에도 이와 같은 표기가 보인다. 예를 들어 ei(每, 메ㄴ이), uai(塊, 콰ㄴ이), uei(誰, 웨ㄴ이), üe(月, 위ㄴ예)와 같다. 둘째, 개구호의 글자 중 ao는 ㅑ와 ㅓ로 표기되었다. 후자는 정치음 성모일 때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정치음 성모가 올 때 모음 ㅣ가 첨가되는 것은 기타 교재에서도 관찰되는데, 예를 들어 ‘手’, 썸, ‘常’, 창, ‘中’, ‘중’으로 쓴 것과 같다. 셋째, en은 이 시기 기타 교재에서도 다양한 표기가 등장하는데, ㄴ(盆), ㄴ(認), ㄴ(人)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합구호의 글자 중 uen에 대한 표기가 기타 교재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問’과 같이 영성모 글자에 대한 표기는 ㅢ으로 썼으나, 다른 성모 글자에 대해서는 ㅢ을 썼다는 것이다. 다섯째, 제치호의 운모에 대해 살펴보겠다. ie에 대한 표기에 일반적으로 ㅢ를 가장 많이 썼고, 다음으로 ㅢ를 쓰기도

했다. ㅞ는 ㅣ 개음이 있는 형식이고, ㅞ는 근대 국어에서 이미 단모음으로 발음되고 있었다. 따라서 왜 ㅞ를 ie에 대한 표기에 쓰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ian도 역시 마찬가지로 ㅞ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였고, ㅞ도 쓰였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ㅞ와 ㅟ의 구분이 없지만, 당시에는 ㅟ가 ㅞ보다 개구도가 더 크다. 당시에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쓴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ㅞ도 등장하는데, 이는 주요모음이 단모음이 ian의 음가와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ü를 개음으로 하는 복운모도 다양한 형식이 나타난다. üan의 경우 교재마다 표기법이 다양한데, 《速修滿洲語自通》에서는 ㅞ(遠)로, 《滿洲語問答會話集》에서는 ㅞ(願)로, 《無師速成滿洲語大王》에서는 ㅞ(元)로 표기하였다. 국어에서의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되지만, 이런 규칙을 파괴한 다양한 모음이 등장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서는 각자 병서, ㅇ계 합용 병서의 사용, 복운모 표기 시 각 음절 사이의 ㅞ표기 및 o, en, ie, ian, üan 에 대응하는 다양한 운모의 등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3.3. 성조

1장에서 서술한 바 있듯이 한국의 중국어 교재에서 성조 표기는 일반적이지 않다. 한국의 사람들이 성조 학습을 중시하지 않아서 성조를 표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한국의 중국어 교재의 편찬 수준이 높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일제강점기 이전에 성조를 기록한 중국어 교재는 유일하게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가 있다. 여기에서 최세진은 방점으로 성조를 기록했다. 1910, 20년대 저작에는 글자의 네 귀의 한 부분에 권점(圈點)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 교재에 성조가 표기된 예는 비교적 적은데, 표기된 저작은 《漢語指南》, 《支那語集成》, 《中語大全》, 《滿洲語

講座》가 있다. 만주어를 표방하고 있는 저작에서도 성조 표기는 일반적이지 않은데, 성조가 표기된 교재로는 《滿洲語速成會話講義錄合本》, 《漢日鮮滿新字典》이 있다. 전자는 一(음평), / (양평), ㄴ(상성), ㄷ(거성)과 같이 선으로 표기하였는데 현대 표준 중국어의 성조 표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거성의 표기가 차이가 난다. 후자는 좀 더 이해가 쉽도록 ㄹ, ㄴ, ㄷ, ㄱ와 같이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4. 한국의 중국어 교재의 정음 인식

한국의에서는 줄곧 북경관화를 중국어의 표준어로 인식하며, 북경관화음을 주음의 기준으로 삼았다. 일찍이 《洪武正韻譯訓》序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어음이 다르고 오류도 심하여, 신 등으로 하여금 중국의 선생과 학자에게 가서 바로 잡도록 명하시니, 왕래가 일곱 여덟 번에 이르고, 질문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 燕都는 만국이 한데 모이는 땅으로, 오가는 길이 멀어 일찍이 쫓아 물어 밝히고자 한 자가 적지 않았고, 변방과 이역에서 온 사신, 종교인과 군인에 이르기까지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이로써 正俗의 같고 다름을 모두 밝히고자 하였다.⁹

燕都는 수도인 북경을 말한다. 위의 기록으로 《洪武正韻譯訓》이 편찬된

9 “然語音既異，傳訛亦甚，乃命臣等，就正中國之先生學士，往來至于七八，所與質之者若干人，燕都爲萬國會同之地，而其往返道途之遠，所嘗與周旋講明者，又爲不少，以至殊方異域之使，釋老卒伍之微，莫不與之相接，以盡正俗異同之變。”

15세기부터 이미 한국의 사람들은 북경음을 기준으로 正俗을 판단할 정도로 북경음을 표준음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洪武正韻譯訓》 편찬에 가담한 申叔舟는 북경으로 가서 중국어음을 질문하였으며, 역관 崔世珍 역시 成宗 및 中宗 때 質正官으로 여러 번 중국에 왕래한 바 있다.(안병희 1999, 2002) 사역원에서 편찬된 중국어 교재의 음운 체계 역시 유성음 성모이 무성음으로 변화된 것, 微母 및 疑母의 소실, 見組의 구개음화, 止攝 精莊組와 日母가 ㄹ로 변화된 것, 合口韻尾와 입성운미의 소실 등과 같은 특징이 근대 북경음의 변화와 일치한다.(蔡英純, 2002) 이는, 한국의 사람들이 일찍이 북경관화를 표준음으로 보고 이에 따라 중국어 교재를 편찬했음을 증명한다.

일제강점기 중국어교재에서는 언어학적 기술이 추가되면서 북경관화를 중국어의 표준어라 직접적으로 명시하였다.

《漢語指南》 1913	중국말을 본래 배우기 어렵다.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의 방언이 있으나, 관화만이 통용된다. 따라서 북경 사람과 말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교류하는 데 어렵지 않다.
《速修漢語大成》 1918	한어라 함은 즉 지나의 국어를 말함이라 지나는 강역이 광대하여 각 성에 방언이 불일치함으로 자국 사람들도 필답을 사용하며 통역을 필요로 하나 관화는 사방에 통용하여 각 공서와 각 사회에 무난히 보급되는 고로 본 책은 완전히 관화 즉 북경어를 표준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中語大全》 1933	관화는 북평관화(북경관화)를 말한다.
《支那語大海》 1938	이 책은 지나 및 만주국의 표준어인 북경관화를 독학 연구하고자 하는 분을 위하여 편찬한 것이다.

《速修漢語大成》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중국의 표준어는 ‘官話’로 지칭되었으며,¹⁰ 이는 위의 기술에서 나타나듯이 ‘북경어’, ‘北平官話’, ‘北京官話’

와 동일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경관화는 1932년 國語統一籌備會에서 당시 北平, 즉 北京의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國音常用字彙》가 정부에 의해 발행되면서 공식적인 표준음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이미 청대 말기 이후 중국의 표준음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1920년 중국의 國語 보급 과정에서 일어난 “북경음과 국음의 분쟁(京國之爭)”은 당시 북경음을 위주로 하되 南北의 어음을 모두 고려하여 제정한 老國音이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음, 즉 북경음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반발하여 생긴 사건이다. 당시 老國音에 반발한 이들은 國音を 인정하지 않고, 北京音을 표준음으로 하여 國音を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¹¹ 이는 이미 북경음이 당시 표준음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5. 나오며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는 중국과의 교역, 중국 이주, 강제 노역 동원, 독립운동 전개 등과 같은 역사적 배경 하에서 탄생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학문 등에서의 변혁적 분위기와 더불어 체제와 형식 상으로도 큰 전환이 일어났다. 근세 시기 사역원에서 편찬된 교재가 기존의 목판이나 활자본

10 중국어의 표준어를 ‘官話’로 지칭한 예는 기타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서도 발견된다. 먼저 《漢語指南》(1913)에서는 “중국 언어는 네 곳의 方言이 있다. 첫 번째 官話, 두 번째 南方話, 세 번째 滿洲話, 네 번째 嶺南話, 이 책은 특별히 官話를 취했다.”고 하였으며, 《(高等官話)華語精選》(1913)에서는 “京話는 하나는 俗話가 있고 하나는 官話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11 袁先欣(2009), 語音, 國音與民族主義: 從五四時期的國語統一論爭談起, 《文學評論》第4期, 137-142쪽 참조.

과 같은 인쇄방식으로 편찬되고, 이원화된 주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중국어 교재는 서양식 인쇄 기술로 중국어의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일본어나 영어로 내용을 번역하며, 가타카나, 알파벳으로도 주음하고,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자모를 조합한 새롭고 다양한 표기를 사용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북경관화를 표준음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음했는데,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서는 북경관화이 표준음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와 같은 표준음에 대한 기술은 이 시기 중국어 교재에서 본격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한국의 중국어 교재 역사상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는 형식, 내용 상의 전환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는 현대식 중국어 교재의 전신(前身)으로, 그 형식, 내용은 오늘날 중국어 교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근현대시기 중국어 교육 관련 연구사를 보여주는 여실한 기록이며, 본고의 연구결과가 중국어 교육사 및 중국어사를 총체적이고 면밀하게 밝히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한국어 논저

김상규(2016), 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중국어 회화 교재 《高等漢語自解》소고, 《중국언어연구》 62집.

김상규(2017),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새로운 일면: 중국어 교육과 중국어회 화교재 편찬-《中語大全》저자 이조현의 삶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67집.

김상규(2020), 일제강점기 한국인 저자의 중국어회화교재 편찬 의도 고찰-한국인 저자의 삶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79집.

김아영(2014),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서에 나타난 어휘 연구,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집.

김아영(2017),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서 《舞師速修滿洲語大王》소고, 《중국어문학논집》 104집.

김아영, 박재연(2018), 일제강점기 한국 출판 중국어 학습서와 국내의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110집.

朴在淵, 金雅英(2008), 《漢語會話書》, 학고방.

朴在淵, 金雅英(2008), 《漢語會話書續編》, 학고방.

유재원(2015), 일제강점기 한어회화서의 중국어 발음 설명에 관한 연구(1), 《중국언어연구》 56집.

유재원(2015), 일제강점기 한어 회화서의 중국어 발음 설명에 관한 연구(2), 《중국어문학논집》 90집.

소은희, 신윤희(2010), 日本殖民地时期第三次朝鮮教育令与汉语教育政策 —以东亚日报、朝鮮日报相关报道为研究材料—, 《중국문화연구》 17집.

소은희(2015), 일제강점기 언어말살정책으로 인한 중국어회화 교재와 매체에 나타난 언어·문화상 고찰, 《중국문화연구》 29집.

서미령(2010), 일제강점기 말기 중국어 교재 연구, 《동아인문학》 17집.

- 서미령(2011a),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 속의 성조, 《중국어문학논집》 71집.
- 서미령(2011b),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의 발음 표기 양상, 《중국어문학지》 37집.
- 신미섭(2010), 일제강점기 말기 중국어 교재 연구: 《內鮮滿最速成 中國語自通》과 《最新華語教科書》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17집.
- 신미섭(2011),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 《官話問答》에서 나타나는 “내저”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 57집.
- 신미섭(2013a),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시제”와 “상”에 관한 인식 연구, 《중국어문학》 62집.
- 신미섭(2013b), 일제강점기 중국어교재에 나타나는 문법내용 연구, 《동아인문학》 25집.
- 신미섭(2014), 20세기초 북경어 연구, 《동아인문학》 28집.
- 신미섭(2015),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代詞연구, 《동아인문학》 30집.
- 신미섭(2016a), 근대 한국의 중국어문법 수용 고찰-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5집.
- 신미섭(2016b),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중국어 교육의 관계,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집.
- 신미섭(2016c), 근대 한국의 중국어문법 수용 고찰, 《동아인문학》 35집.
- 신미섭(2020), 20세기 초 한국의 중국어 교재 속 ‘來着’분석 및 인식 고찰, 《동아인문학》 53집.
- 이광숙(2014), 《개화기의 외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安秉禧(1999), 崔世珍의 生涯와 年譜, 《규장각》 22.
- 안병희(2002), 申叔舟의 생애와 학문, 《새국어생활》 제12권 제 3호.
- 정광(1998), 《사역원 역학서 책판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 중국어 논저

陳明娥, 李無末(2012), 清末民初北京話口語詞彙及其漢語史價值——以日本明治時期

北京官話課本為例,《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期。

教育部國語統一籌備委員會(1932),《國音常用字匯》,商務印書館。

袁先欣(2009),語音,國音與民族主義:從五四時期的國語統一論爭談起,《文學評論》第4期。

錢曾怡(2010),《漢語官話方言研究》,齊魯書社。

鄒德文(2013),朝鮮漢語文獻四種所見韻母的清代東北方音特徵,《長春師範學院學報》第2期。

鄒德文(2018),歷史事件與東北方言的形成及其層次問題,《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2期。

鄒德文,金茗竹(2014),朝鮮四種文獻所見漢語聲母的清代東北方音特徵,《北方論叢》第1期。

鄒德文,馮煒(2008),《黃鐘通韻》、《音韻逢源》的東北方言語音特徵,《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第4期。

Hangeul annotation and recognition on standard dialect in Chinese textbooks published in Japanese colonial era

Khoo, Hyun-ah

Chinese textbook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created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rade with China,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ce movements, migration under colonization, and the mobilization of forced labor. Along with the revolutionary atmosphere i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academia, there was also a major transition in format and formatting. Moving away from the uniform notation of binary notes, the same surnames, and mica using conventional printing methods such as woodblock and letterpress, Western printing technology was used to describe the standard and dialectal Chinese language in detail, translate the content into Japanese and English, write the notes in katakana and alphabets, and use new and diverse notations for surnames, mica, and surnames that had not been attempted before. In particular, in Korea, Peking mandarin has long been recognized as the standard sound, and many Chinese textbooks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lso use this as a basis for writing surnames, rhymes, and tones, and specifying Peking mandarin as the correct sound. This is a rich record of the research history of Chinese education in the modern era. We hope that the findings in this book will contribute to a more comprehensive

and detailed study of the history of Chinese education and the history of the Chinese language.

Keywords: Chinese textbooks, Japanese colonial era, katakana, alphabet, Peking mandarin